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어린 아이와 같이 [마가복음 10:13-16]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3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 아이가 주는 교훈.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지만 자주 매우 만족해하고 뿌듯해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라나면서 그 신뢰와 사랑은 오만가지의 조건들에 좌지우지 됩니다. 소득정도, 자격정도 그리고 금지항목 등.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14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14)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3에는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이들과 같은 믿음과 신뢰만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나 지혜, 힘 아니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닌 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성숙하고 독립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선 믿음이 커질 순 있지만 결코 (성숙하고 독립된 존재로) 자라나진 않습니다.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났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겸손히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께 인도함 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겸손히 전해주는 것. "2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뎀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 뎀 아이와 같도다." (시편 131:2)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누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경건한 삶의 경계를 설정해 주는 것. 그들에게 올바른 선택들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들에게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켜주는 것.

우리의 아이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백성의 일원입니다.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이 놀랍고 엄청난 책임을 지고 갑니다. 서로에게 헌신합니다. 서로서로를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집과 가족들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아기들조차도 빌립보서 2:3 말씀에 해당됩니다. "3 아무 일에도든지 다통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3) 적극적으로 서로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조연합시다. 언약백성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